

# 디아스포라 '강가마'의 눈물 꽃

-강경애 생애와 작품을 중심으로-

2015급 중한비교문학 석사연구생 김미란

## 1. 들어가면서

'강가마'는 강경애의 필명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에 가마가 둘이나 있는 쌍가마였다. 그래서 '강가마'라는 아명으로 불리웠는데 이를 필명으로 사용했다. 본고의 제목에서 필명을 사용한 이유는 인간 강경애와 작가로서의 이름인 '강가마'가 가진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눈물이 꽃과 같이 문학으로 열매 맺은 것을 상징하기 위함이다. 이 여성은 일제 강점기에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다. 억눌리고 무시당하는 여성에 대해 부당하다고 저항했고 간도 이주민들의 착취 당하고 유린당하는 모습에 분노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았던 삶의 현장에서 억눌려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노동운동가로서의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가정사의 불행과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버텨내려고 몸부림 친 하나의 연약한 인간이기도 했다.

이 작가는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의 작가 또는 이주문학의 작가로 평가되고 연구되어 왔다. 물론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 그 방면에서 그녀의 작품이 끼친 영향이 컸다. 때로는 여성 작가로서 여성 문제에 가장 큰 목소리를 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또한 중국 만주지역의 문학계에 한 획을 그었다는 칭송도 받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또 하나의 시각으로 강경애와 그녀의 작품을 짚어보려고 한다. 즉, 그녀의 삶과 문학 작품을 '디아스포라의 한과 눈물의 시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작가의 생애가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드라마틱한 한 인간의 삶이 그녀의 문학 작품 속에 드러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고국을 떠나 유랑의 삶을 살아야 했던 강경애와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리얼리즘의 수법으로 찾아낸 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제 그녀의 삶의 고단함을 따라가면서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그것들이 품어지고 있는지 연구해 본다.

## 2. 강경애의 생애와 작품

1944년 4월 26일에 39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친 강경애를 평가하기 전에 그녀의 신분을 정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강경애는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다시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중국의 조선족 신분과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중국 이주 조선인들을 새로 건국된 중국의 한 민족으로 받아들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과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경애는 조선족들의 앞서 살아간 선배로서 충분히 디아스포라적 감정을 가지고 작품을 써 내려갔다. 왜냐하면 중국 국적의 조선족은 이미 강경애와 같은 이주 조선인으로서의 동일한 삶의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의 작품 속에서는 이미 같은 고통과 분노와 애통 속에서 그들을 그려낸 사실적인 이야기가 넘치고 있음이다.

따라서 중국 이주 조선인이든 중국 국적 조선족이든 동일한 한반도의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강경애의 작품을 일제 강점기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비참했던 삶의 애환을 담은 작품이라고 평가하기에 문제가 없을 듯 하다. 이런 시각으로 강경애의 삶과 작품에 접근해 본다.

### 2.1. 강경애의 생애

1906년 4월 20일 황해도 송화에서 태어난 강경애는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어머니의 재혼으로 일곱 살에 장연이라는 곳으로 이주한다. 의붓 형제들 사이에서 힘겹게 자라났고 집안이 어려워 형부의 도움으로 평양 송의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동맹 휴학 등의 이유로 중퇴한다. 그 후 서울 동덕여학교에 편입하였고 그 시절에 그녀의 문학적 재질을 알아본 양주동(楊柱東)과 운명적으로 만난다. 유부남이었던 그와 동거하며 문학에 대해 배우게 된다. 그러나 아내가 있는 남성과 동거하는 것에 대한 비난 속에 반 년 만에 결별한다. 그러나 그와 헤어진 후 강경애의 태도는 반전된다, 그의 평론에 대해 실랄하게 비판한 것이다.<sup>1</sup> 글의 내용과 의식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한 점은 당시 경성 문단에 대한 일종의 환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주저없이 표출해 내는 그녀는 이미 많은 투쟁과 환경의 어려움이 던져주는 연단 속에서 단단하게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주동과 헤어진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 황해도 한 단체의 간부로 활동하며 신문사에 글을 투고하기도 하며 작품활동을 하며 지냈다. 1931년 이미 아내가 있던 장하일과 결혼한 후 간도로 떠났다. 그러면서 그 해 조선일보에 단편소설《破琴》을 연재 하였고 장편소설 《어머니와 딸》을 발

---

<sup>1</sup> 강경애, <양주동군의 신춘평론-반박을 위한 반박>, 조선일보, 1931. 2.11.

표했다. 그리고 《北乡》의 동인으로 활동했다.

강경애는 항일투쟁을 벌인 사람들의 삶의 실상과 하층민의 처참한 현실 등을 있는 그대로 글로 썼다. 그것이 작가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소설 작품 속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용정으로 이주한 뒤 일제와 지주, 기업인들에게 착취 당하는 민중의 삶을 폭로하는 사회성이 강한 작품을 발표했다. 이것은 타국으로 이주해온 디아스포라들의 설움을 문학 작품으로 표현한 저항이었다.

가난한 살림살이와 두 번이나 유부남과 사실혼 생활을 하던 부담 등은 그녀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 인해 병고로 시달리다 1942년 고국으로 돌아간 강경애는 건강의 악화로 1944년 사망했다. 그녀의 생애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매우 비참한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때문인지 가난하고 구차한 삶을 살아가는 중국 이주민들과 민초들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고통스러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사실적으로 고발한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그녀가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역량을 드러냈다고 본다. 하지만 사회 비판성이 강한 작품을 꺼리는 당시의 풍토와 한 때 김좌진 의 암살의혹을 받던 김봉환이 내연녀였다는 점이 그녀의 작품들을 외면당하게 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그녀의 작품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문화관광부는 강경애를 2005년 '3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좌진의 암살에 공모했다는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 2.2. 강경애 작품 속 디아스포라의 눈물

강경애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의 주제로 연구 분석하였다. 첫째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강경애의 작품을 연구한 것이 그것이다. 두 번째는 만주지역 이주 문학의 한 부분으로 연구한 것이다. 세 번째는 디아스포라 문학의 분석으로 연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세 번째의 시각으로 강경애의 작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디아스포라의 애환과 눈물을 모아 꽃으로 피워낸 작품들로서 강경애의 문학을 살펴본다. 그녀는 고국을 떠나 만주라는 타국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거기에 모여있던 공동체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고향과 조국을 떠나서 유랑하는 한반도의 이주민들이었다. 이들은 중국 현지인들과의 충돌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충격으로 긴장된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다. 그 민초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펜으로 알리고 그들의 눈물을 고발한 작품들이 바로 강경애의 문학 속에 넘쳐나고 있다.

동아일보에 발표했던 강경애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인간문제(1934)》에서는 최하층 여성의 삶을 통해 식민 현실과 계급 차별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다. 그녀는 1930년대 식민지 현실을 누구보다 사회주의적으로 그린 여성작가로 평가 받고 있다. 여기서 작가는 환경에 따른 인간의 변모 양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또한 인간의 위선적인 삶을 비판하고 궁핍한 삶을 보여주며 정덕호와 선비를 통해 '가진 자'들이 그들의 개인 안락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으로써 일제의 치하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서민의 삶과 애환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며 민족애를 자각 시키고 있다.<sup>2</sup>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간도를 배경으로 우리 민족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생활 속에서의 디아스포라의 애통함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sup>3</sup> 당시의 많은 작가들이 현실을 외면하였지만, 강경애는 농민의 비참한 실상을 고발하고 식민지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인간문제》역시 당시의 농촌 문제, 노동 문제, 여성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당대 최고의 리얼리즘 소설로 평가 받고 있다.

《소금(1934)》은 빗 때문에 정든 고향을 등지고 간도로 떠난 봉염네 가족이 중국인 지주 팡동의 땅을 부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남편이 살해되고 아들 봉식이 집을 나가 공산당원이 된다. 그러나 봉식으로 인해 봉염과 봉염네는 팡동 집에 얹혀산다. 하지만 팡동에게 성적인 유린을 당한 봉염네는 쫓겨 나고 두 딸을 잃고 소금 밑수에 가담한다. 그러나 순사에게 발각되고 문득 공산당이 한 연설을 떠올리고 순사에게 달려든다.<sup>4</sup> 조국을 떠난 서러운 이주민으로서 현지인에게 당하는 설움과 눈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1936년에 쓴 <지하촌>은 극한적인 빈궁 속에서 사람이 얼마만큼 비참해질 수 있나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같은 해 일본어로 쓴 <장산곶>은 일본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의 연대 문제를 폭로하였다. 그 밖에 칼럼과 시론을 통해서도 핍박 받는 악덕 지주들의 폭행과 월급을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상 그리고 여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드러냈다.

이러한 작품들의 결말을 살펴보면 강경애는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주인공들이 주변의 긍정적 인물 혹은 부정적 인물들과 만남을 통해 심리적 변화를 겪는다. 그러면서 사상의 전환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무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결말로 작품을 끝맺고 있다.<sup>5</sup> 이러한 결말의 말하는 것은 디아스포라의 위치에 서 있는 피지배층과 하층민의 애환과 눈물을 대신하는 호소일 것이다.

<sup>2</sup> 김영임, <강경애 소설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22..

<sup>3</sup> 위의 자료, p.1.

<sup>4</sup> 김영임, <강경애 소설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17.

<sup>5</sup> 우연정, <강경애 소설의 결말 구조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연구, 2009, p.17.

한 연구 논문에서 찾아 본 강경애의 작품의 특징은, 첫째 일제에 대한 투철한 저항의식, 둘째 민족의식의 고취, 셋째 빈약자에 대한 철저한 옹호정신, 넷째 가진 자의 횡포와 부도덕에 대한 규명, 다섯째, 여성해방의 의지, 여섯째 간도의 정치적 사회적 특수성의 절개와 그 진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6</sup> 이렇듯 강경애의 작품은 그녀가 실제로 보고 체험한 일들을 소재로 디아스포라의 애환이 사실적으로 잘 고발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 3. 나가면서

강경애는 1930년대 여성문인으로써는 두드러지게 경험적 리얼리즘으로 작품을 발표한 작가이다. 그가 스스로 보거나 겪지 않은 것은 작품에 표현하기보다 직접 겪고 느낀 일상의 삶을 중심으로 인물을 묘사하고 사건을 만들고 배경을 설정함으로 당대 현실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작가로 인정해야 한다.<sup>7</sup> 이러한 리얼리즘을 가지고 식민지 치하의 만주 이주 조선인들의 눈물을 있는 그대로 작품에 그려낸 혁명가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안에는 강경애 자신도 속해 있었기에 더욱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1930년대 전후로 여러 여성 작가들이 등장하지만 강경애와 같이 강력한 의지로 사회고발을 한 작가는 많지 않다. 더구나 기득층의 문단에서 여성이라는 것과 중앙에서 떨어져 타국의 변두리에 처해 사는 이유로 무시 받고 작품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살아가던 만주 지역의 디아스포라의 한 일원으로 현실을 눈물겹게 호소한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창작된 것은 작가의식의 투쟁이었다고 본다. 그녀가 생전에 남긴 작품은 단편 18편, 중편 2편, 장편 1편, 수필 등 기타 작품이 10 편 정도 남아있다. 간도에서 생활할 때 이웃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소박하고 평범한 주부로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작품을 쓸 때에는 원고지에 쓰다가 찢는 일들이 계속 되어 많은 파지를 내면서 열정적으로 자신이 체험한 것들을 사실적으로 써내려 갔다.

‘강가마’라는 필명으로 문단에 등장해서 여러 개인적 고통과 사랑의 아픔 속에 끊임 없이 디아스포라로, 차별 받는 여성으로, 피식민지 조선인으로서 그늘 속에 살던 비참하고 피곤했던 사람들의 삶을 문학이라는 양지로 끌어냈다. 그녀는 소외된 자들을 향한 뜨거운 눈물로 문학의 꽃을 피워낸 정신적인 정원사이며 노동 운동가로 살다간 작가이다.

---

<sup>6</sup> 이계희, <빛과 어둠의 절규>, 단행본, p.p. 49~77 요약

<sup>7</sup> 우연정, <강경애 소설의 결말 구조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연구, 2009, p.4.

## 참고문헌

- [1] 우연정, <강경애 소설의 결말 구조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연구, 2009.
- [2] 김영임, <강경애 소설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3] 강경애, <양주동 군의 신춘평론-반박을 위한 반박>, 조선일보, 1931. 2.11.
- [4] 이계희, <빛과 어둠의 절규>, 단행본.
- [5] 김호웅, 《디아스포라의 시각》, 연변인민출판사, 2014.
- [6] 이경혜, 《姜敬爱研究》, 논문집, Vol 9 No-, 1989.
- [7] 네이버 자료 참조.